



# 광주 4대 문화기관 상설협의체 만든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시립미술관, 아시아문화개발원 등 '광주 4대 문화기관'이 지역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상설 협의체는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는 물론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기관은 본격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면 일차적으로 지역 문화 인재 양성 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문화 인력 육성' 공감=지역 문화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시립미술관 대표 및 관장이 만나 상설 협의체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조율을 끝냈다.

이들 기관 대표들은 최근 지역에서 수차례 제기됐던 "지역 문화기관이 인재 육성에 소홀했다"는 목소리에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광주비엔날레 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지역의 전문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엔날레재단은 타 문화기관들의 의견

## 지역 문화인재 양성 사업 공동 진행 행사·정책에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수령을 통해 재단 자체적으로 문화기획자 양성 등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 열리는 '광주문화기관협의회'에서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 기관 실무자들이 만나 이에 대한 공동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에는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 아시아문화개발원, 광주발전연구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동채 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아직 아시아문화개발원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특별법'에도 광주 문화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문화 인재 육성 사업이 성공하면 전담과 지역 문화기관의 콘텐츠 활용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만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은 "개발원에서도 내년부터 지역 문화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며 "다른 기관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대 효과=지역의 문화 기관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빠른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전담을 채용한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상설 협의체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면 각 기관의 노하우와 국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콘텐츠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엔날레와 전담의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이를 활용한 재생산도 기대해 볼만하다.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국제 교류

전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진호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장기적으로는 지역 타기관과 연계해 국제레지던시와 국제 교류전 등을 함께 추진하고 싶다"며 "미술관이 교류하고 있는 각국 미술관과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 문화 정책 수립과 진행에 대한 일관성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에 존재했던 광주문화기관협의회처럼 형식적인 모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 사업에 따른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문화기관협의회는 지난해 8월 결성됐지만 그동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매달 열리는 간담회 외에는 이렇다할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다. 4개 기관의 살림이 빠듯한 상황에서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특정 기관이나 장르에 편중되면 안 된다. 문화 행정, 기획, 관리, 작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돼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블랙 코미디 오페라 '버섯피자'

빛소리오페라단, 28~30일 광주아트홀서 공연

(사)빛소리오페라단(총감독 최덕식)이 블랙 코미디 오페라 '버섯피자'를 무대에 올린다. 28~30일 오후 7시30분 광주아트홀.

공연이 열리는 광주아트홀은 125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소규모의 오페라, 연극, 뮤지컬, 콘서트 전용극장이며 LED 조명과 스타인웨이 피아노 등을 갖추고 있다.

희극 오페라 대가라 불리는 세미무어 바랍의 대표 오페라인 '버섯피자'는 네 남녀의 얽히고 설킨 애정행각을 재미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르마조 백작과 결혼한 볼루푸아는 젊고 매력 있는 스키피오와 사랑에 빠진다. 볼루푸아는 자신의 사랑인 스키피오

와 결혼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이혼이 금지돼 있어 남편이 좋아하는 버섯피자에 독버섯을 넣어 죽이기로 한다. 하지만 백작은 그를 연모하던 허녀 포비아를 통해 이 계락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난다. 백작부인 볼루푸아 역은 유형민·임영란·장희정씨가 맡았으며 포르마조 백작 역으로는 마명준·김지욱·김승지씨가 출연한다. 또 스키피오 역에 정기주·장호영·김용덕씨, 허녀 포비아역에 박정희·박정연·김찬희씨가 캐스팅됐다. 박미에 광주대 교수가 연출 및 지휘를 맡았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문의 062-227-74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전경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다시 생각한다'

문병훈, 문화전당 전략 다뤄

내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다룬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를 지낸 박 병은 문병훈 박사가 '아시아문화중

심도시 광주를 다시 생각한다'(다큐디자인)를 펴냈다. 저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경쟁력과 전략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이런 질문에 비춰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한다. '광주 정체성의 실종', '경제 성장 엔진의 부재', '흡입력 미비', '토건사업 위주의 문화권 조성', '시민과의 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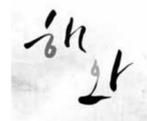
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 그는 '아시아문화'가 광주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이식된 개념이며, 또한 정부의 지원없이 자립적인 문화도시로의 도약은 요원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문화전당에 랜드마크 기능이 없고 하드웨어만 구축되었

을 뿐 차별화된 소프트웨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 박사는 "'아시아문화의 메카'라는 프레임에 폐기하고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전당건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그는 "새로운 정책 전략으로 '한국음식문화산업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해와자유대학 '지식강좌' 겨울학기 참가자 모집



12월부터 월 1회  
인문학·역사  
문학·미학 강좌

해와문화예술공간이 12월부터 시작되는 해와자유대학 겨울학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와자유대학 지식강좌는 월 1회 토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며 과목은 인문학, 역사, 문학, 미학이다.

인문기초 강좌는 '다시 합리적인 사회를 꿈꿀 수 있는가'를 주제로 유도환(전남대 철학과) 박사가 진행한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모두 6차례에 걸쳐 '사회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의 빛과 그림자' '사회적 고통의 경험' '심미적 합리성과 인간존엄적 사회' 등 6개 소주제로 강좌가 열린다.

'역사를 바라보는 바른 눈 키우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역사기초 강좌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조상현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원이 진행한다. '역사 속 진실 찾기' '신화와 역사' '역사학의 성장' '역사를 이해하는 도구' 등 소주제로 6차례 강좌가 열린다.

문학기초는 '주말에 만나는 문학'을 주제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진행된다. '추홍길자' '빙점' '남쪽으로 튀어' '폭풍의 언덕' 등 영화화된 문학 6편을 살펴본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열리는 미학기초는 '미학과 삶 그리고 예술'을 주제로 열린다. '미학의 탄생' '현대예술의 패러다임' '공공연한 공공예술' 등을 살핀다.

강좌별 수강료는 6만원이다. 문의 062-233-901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www.cjhellovision.com